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 중독* -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Relationships on Parents'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The Mediating Effect of Impulsiveness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 수 김민경**

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Professor Kim, Min-Kye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한부모가족의 자원관리 실태 분석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rrelation between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s, emotional bonding of adolescents with parents, impulsivenes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The paper will also explore the mediating role of impulsiveness between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The subjects were made up of 237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by PASW and AMOS. The instruments used were Lee et al. (1997) Parenting Attitude, Hudson (1982) Child's Attitude Toward Parent (CATP), Lee (2001) BIS (Barnett Impulsiveness Scale) and Lee (2008) Cellular Phone Addiction.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sex of the adolesc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cellular phone addiction and their family economic statu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 본 연구는 2013년 남서울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됨.

** 주저자, 교신저자 : 김민경(mkm35@nsu.ac.kr)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impulsivenes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Emotional bonding of adolescents with parent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mpulsivenes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influenced impulsivenes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negatively, and impulsiveness mediat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influenced adolescents' impulsiveness and cellular phone addiction positively, but impulsiveness influenced cellular phone addiction positively. In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intervene in adolescents' cellular phone addiction through speci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to build 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and to reduce impulsiveness.

Key Words : 권위주의적 양육태도(Authoritative parenting attitude),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Adolescent's emotional bonding with parents), 충동성(Impulsiveness), 휴대폰 중독(Cellular phone addiction)

I. 서론

휴대폰은 우리생활의 필수품이자 삶 자체가 되었다. 휴대폰은 타인에게 정보전달 뿐만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정서적 관계의 유지, 나아가 스트레스와 놀이거리를 제공해주는 다양한 제공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청(2012)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 휴대폰 가입자수는 52,507,000명으로 인구 100명당 98.4명으로 집계되어 1인당 휴대폰을 거의 한 대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대폰 보급율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의 휴대폰중독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에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고, 다양한 서비스제공의 1차적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휴대폰 사용은 인터넷보다 더욱 큰 시각적 자극이 될 수 있다(Madell & Muncer, 2004). 휴대폰은 청소년에게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래집단의 유대를 강화하며 문자메시지나 무선인터넷 접속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게임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동

영상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의 자녀에게는 부모가 자녀와 대화를 하며 안전을 확인하는 유일한 소통이 되는 것(Mercedes, 2009)으로 여러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휴대폰사용은 청소년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지만 이의 과다사용으로 인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특히 건강상, 경제적, 정신병리적 측면과 학업부적응과 이탈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다(김병구 외, 2006). 즉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왔을 때 불안하고 초조해 수업이나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증상, 휴대폰 벨이나 진동이 울린 것으로 착각하는 환청 현상, 무작정 휴대폰 벨소리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픈 경험 등이 보고되고 있다(김병구 외, 2006). 휴대폰 의존성은 금단 현상 외에도 휴대폰 사용에 대한 강박 증세, 휴대폰에 대한 계속적 사용을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주관적 감각인 '통제 상실'을 야기한다(박응기, 2003). 특히 휴대폰 의존성이 심하면 적대감,

편집증이 높고, 학교친구적응도와 학교생활적응이 낮게 나타났다(헤럴드경제, 2012). 따라서 휴대폰 중독과 이로 인한 부정적 결과들의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볼 때 부모-자녀관계, 양육태도, 의사소통 양식, 애착 등과 같은 부모 요인들이 있는데(이진형, 2006; 임진형, 2007; 차미숙, 2006; 최이순, 2007), 부모의 애정적 태도나 의사소통이 휴대폰 중독에서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정복자, 2002), 이와 유사하게 부모의 양육태도가 거부적, 통제적일수록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이 높다고 하였다(임진형, 2007). 청소년들의 경우 가정 내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분위기라면, 휴대폰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질 것이다. 개인화된 휴대폰을 통해 부모와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의식하지 않고 친구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될 때,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휴대폰을 통해 발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나은영, 2001). 반대로 휴대폰 사용의 확산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약화되기도 한다(Katz, 1999). 휴대폰 비중독군은 어머니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인 만족감과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만족감을 주고 휴대폰 중독을 낮추게 한다(최은영, 2008)고 하였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체계이며 그 안에서 각 개인은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는 곧 부모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바꿀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지도하고 통제하고 평가한다. 또한 질서나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자녀는 불행감과 좌절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며 자기통제력을 키우는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송재원, 2005)고 하였다. 부모의 합리적 양육행동이나 일괄적 통제행동은 자녀의 충동성을 감소시킨다(Bowlby, 1988).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충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련성을 면밀히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의 충동성은 자기통제의 실패로서 생활기능영역에서의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미디어의 사용에서도 충동 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나아가 청소년들이 가상현실에서의 자기탐색은 현실과 연관·통합되어야 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애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 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에 통신중독으로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이계원, 2001). 특히 휴대폰 중독성향의 증가는 충동성향이 클수록 높게 나타난다(양심영·박영선, 2005).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가정환경요인 중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유대가 청소년자녀의 휴대폰 중독과 관련됨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가 충동성에 영향을 주고 있고 충동성은 휴대폰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동성이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청소년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며 궁극적으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 중독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향상과 건강한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를 둔다.

<연구문제 1>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 과 휴대폰중독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전화 중독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 과 휴대폰중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휴대 폰 중독에 미치는 관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에 있는가?

II. 선행연구고찰

1.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및 청소년의 충동성

통제력의 상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격특성은 충동성이다.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초기경험은 매우 중요하고 이 초기경험 중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자아발달과 성격형성, 행동양식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문제행동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거부적이거나 적대적, 제한적이고 비일관적일 때 청소년자녀의 문제행동은 높아지는데 비해, 합리적인 양육행동이나 애정적이고 관심을 보이며 일관성있는 통제행동을 보일 때 자녀의 충동성은 낮아진다(Bowlby, 1988).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들의 경우 바꿀 수 없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자녀의 행동과 태도를 지도하고 통제하고 평가한다. 또한 질서나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자녀는 불행감과 좌절감을 자주 경험하게 되고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게

되며 자기통제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송재원, 2005)고 하였다.

부모의 지속적인 자녀감독과 자녀에 대한 분별된 부모지지의 제공은 청소년비행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확인되었고(엄명용, 2001),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통요인이 부모와의 관계임이 밝혀졌다(김용석·박명숙, 2000).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와의 관계가 충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자녀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청소년자녀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일수록(차미숙, 2006; 최이순, 2007), 통제적일수록(임진형, 2007; 정복자, 2010)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폰중독군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적대, 통제, 비성취, 비합리적으로 지각하였으며 반면에 휴대폰 비중독군은 휴대폰 중독군보다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애정, 자율, 성취, 합리적으로 지각하였다(류미숙·권미경, 2011; 임진형, 2007).

어머니가 비합리적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지도할수록 자녀는 더욱 휴대폰 중독이 높아지며 어머니의 합리적 설명에 의한 양육태도가 외로움을 지닌 남자 중학생에게 휴대폰 중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재요인이 된다고 하였다(차미숙, 2006). 어머니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휴대폰으로 대화나 의사소통하고, 어머니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일 때는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로 혼자 활동하는 게임, 오락 등을 집중한다고 함으로써 양육태도에 따라 휴대폰의 사용 목적에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정복자, 2010).

부모로부터 심리적 자율을 경험한 청소년자녀

보다 심리적인 규제를 경험한 청소년자녀가 휴대폰의 통신형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재은, 2005). 즉 부모의 비합리적이고 적대적,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및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휴대폰 중독군은 비중독군보다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폐쇄적이고 역기능적이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으며, 휴대폰 비중독군은 휴대폰 중독군보다 어머니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이고 기능적이며 어머니의 관계가 원만하였다(류미숙·권미경, 2011). 유평수(2010)도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휴대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휴대폰 중독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문제중심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휴대폰 중독의 경향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정 내의 대화패턴이 평등하고 애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욕구불만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의 휴대폰 사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며(차미숙, 2006) 사춘기 청소년자녀는 어머니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기 보다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려는 방법의 하나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였다(정복자, 2010).

또한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정서적인 만족감과 친밀감을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만족감을 주고 휴대폰 중독을 낮추게 한다(최은영, 2008). 청소년자녀의 경우 자신이 가정 내에서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된다면 휴대폰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질 것이며 개인화된 휴대폰을 통해 부모와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의식하지 않고 친구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될 때, 가정에서 충족시

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휴대폰을 통해 발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나은영, 2001). 이와 같은 휴대폰 사용의 확산은 또다시 부모-자녀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Katz, 1999).

휴대폰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자녀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는 측면(나은영, 2001)도 있지만 자녀의 휴대폰은 부모들이 범접할 수 없는 자녀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자녀와 어머니와의 간극을 벌여놓기도 한다. 한편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항상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어머니들이 어머니노릇을 상시화하면서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김명혜, 2005). 휴대폰기술이 발전, 진화하고 있지만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들은 새로운 휴대폰기술에 더 능숙하고 이 부분에서 어머니들과 자녀들사이의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갭(digital gap)이 형성되어 권력관계가 역전될 수 있다고 하였다(김명혜, 2005; 김혜수, 2005).

4. 청소년자녀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

휴대폰 중독과 충동성과의 관계에서 Sapira 외(2000)의 연구자들은 인터넷중독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이 병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충동조절장애와 유사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연구에 참가한 성인 남녀들의 행동이 강박적이거나 자아이질적이기 보다는 충동적이고 자아동조적이라고 보았다. 청소년자녀의 충동성은 자기통제의 실패로서 생활기능영역에서의 여러 가지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미디어의 사용에서도 충동조절의 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 나아가 청소년자녀들이 가상현실에서의 자기탐색은 현실과 연관·통합되어야 하는데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에서 장애의 더 큰 만족을 추구하기 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에 통신중독으로 빠지기 쉽다고 하였다(이계원, 2001). Knecht(1995)가 약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중독적인 행동의 기저에는 다른 중독장애와 공통적으로 충동통제의 결핍이 있다고 하였다. 휴대폰은 사용자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충동적인 성향이 높은 사람은 상기한 매체의 특성이 더욱 매력으로 작용하여 휴대폰사용에 대한 욕구를 상승시킬 수 있다.

양심영과 박영선(2005)은 청소년자녀의 휴대폰 중독집단이 충동성이 높다고 하였다. 즉 휴대폰 비중독집단보다 중독집단이 충동성을 보였는데 중독성향의 증가는 과대한 휴대폰사용동기와 충동성향이 클수록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해경(2008)의 연구에서도 휴대폰의 중독적 사용은 동조성이 높을수록, 모방성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을수록 더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해경, 2008). 휴대폰과다사용 청소년의 경우 비과다사용 청소년들에 비해 자존감이 낮고, 우울 및 충동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곽민주, 2004). 장혜진과 채규만(2006)의 연구에서 휴대폰 중독적 사용에 충동성과 애착불안, 애착의존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애착불안과 애착의존이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다. 휴대폰사용에 대한 통제의 실패는 결국 휴대폰 중독에 이르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ogue, 1995). 특히 충동성은 회피적인 대처방식,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중독증을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이송선,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청소년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 중독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자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중독과의 관계에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도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청소년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표집은 각 지역을 고려하여 서울지역 S고, G고, 경기지역 P고, A고, 충청지역 B고, C고 등 총 6개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되었다.

본 조사를 위해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 교고에서 남녀청소년 각각 30명 씩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청소년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담당 선생님을 통해 바로 수거하였다. 본조사는 2012년 3월 2일에서 4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에게 설문을 배포하기 전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응답이 이루어진 후 바로 수거하였다. 250부를 배포하였으며, 무응답, 중복응답 등으로 인해 부적절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38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남자청소년은 49.0%, 여자청소년은 51.0%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만 16-18세에까지 골고루 분포되었다. 종교는 기타를 제외하고 기독교가 27.7%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천주교로 14.3%로 나타났다. 경제수준은 중류층이 60.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중상류층이나 중하류층이 각각 16.4%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N	%			N	%
성별	남	117	49.0	연령	16세	71	29.8
	여	121	51.0		17세	83	34.9
					18세	84	35.3
종교	기독교	66	27.7	경제 수준	상류층	6	2.5
	천주교	34	14.3		중상류층	39	16.4
	불교	21	8.8		중류층	143	60.1
	기타	111	46.6		중하류층	39	16.4
	종교없음	6	2.5		하류층	11	4.6

2. 측정도구

문항내용의 적합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남녀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와 이들을 대상으로 문항내용의 이해도와 적절성을 평가한 후 청소년전공 교수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를 검토받은 후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과 경제적 수준에 대해 측정하였다.

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에 대해 부정적 혹은 거부적인 태도로 임하며 모든 일에 있어 자녀를 통제하려고 하는 양육태도로 이런 부모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심한 체벌이나 잔소리 혹은 욕설을 듣게 되기도 한다. 이시형 외(1997)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의 양육태도 중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으로 '부모님은 나의 나쁜 점을 꼬집어 얘기한다', '나는 부모님께 내 친구들에 비해 야단을 더 맞는 것 같다', '부모님은 남 앞에서 나를 나무라거나 안좋게 얘기한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89로 나타났다.

2)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감정의 상호교류로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Hudson(1982)에 의해 개발된 Child's Attitude Toward Parent(CATP)척도를 김용석과 박명숙(2000)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김용석과 박명숙(2000)의 연구에서 신뢰도가 .87로 나타났으며 총 11개의 문항으로 6개는 긍정적 문항, 5개는 부정적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858로 나타났다. '부모님은 나를 이해하신다', '부모님과 잘 지낸다', '부모님을 아주 잘 지낸다' 등 5점 척도로, 본 연구에서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909로 나타났다.

3) 충동성

충동성은 사고나 행동이 단순하고 감정적이며 어디에 속박되거나 제약을 받기 싫어하는 인성특질로서 자제력이 약하며 기분나는 대로 혹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 혹은 시작한 행동을 중단하거나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성격특질을 말한다(Gray, 1987). 이현수(1992)가 변안한 BIS(Barnett Impulsiveness Scale) 11판 중에서 일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나자신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다’, ‘앞뒤 생각없이 행동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한다’ 등 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충동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788로 나타났다.

4) 휴대폰 중독

휴대폰의 중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해경(2008)이 사용한 척도를 참조하였다. 인터넷 중독의 진단에 기초하여 의존, 내성, 부적응, 금단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금단문항 9개, 부적응문항 8개, 강박문항 5개, 내성문항 4개로 금단문항으로는 ‘휴대폰이 없으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휴대폰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휴대폰이 없으면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진다’ 등이며, 부적응문항으로는 ‘휴대폰사용 때문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다’, ‘휴대폰사용으로 인해 해야 할 일들이 지장을 받는다’, ‘휴대폰사용으로 학교성적이나 업무능력이 떨어진다’ 등이며, 강박문항으로는 ‘휴대폰을 잠시도 떼어놓지 못한다’, ‘수시로 휴대폰 단말기를 들여다 본다’, ‘시간이 날 때마다 휴대폰을 사용하게 된다’ 등이며, 내성으로는 ‘휴대폰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해봤지만 실패한다’, ‘휴대폰 사용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처음 의도했던 것보다 오랫동안 사용하게 된다’ 등으로 구성하였다.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휴대폰몰입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금단문항은 .786, 부적응문항은 .723, 강박문항은 .674, 내성문항은 .913이며 총 문항은 .90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청소년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 변인들의 관

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청소년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 중독에 대한 충동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와 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이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다. 여러 적합도 지수 중에서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이 지수들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수들이 표본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TLI와 RMSEA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 뿐 아니라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하기 때문이다(홍세희, 2000). RMSEA값이 .05 이하이고, CFI와 TLI는 .95값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분석에 앞서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이루는지 살펴보기 위해 첨도와 왜도를 살펴본 결과,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과 AMOS 6.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중독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먼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2.265로 보통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3.892로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비교적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충동성은 2.228로 보통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휴대폰중독은 2.350으로 충동성과 유사하게 보통수준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2〉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M	SD
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2.265	.747
2.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3.892	.704
3. 충동성	2.228	.701
4. 휴대폰중독	2.350	.657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청소년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의 차이는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휴대폰 중독에 차이를 보였는데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휴대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휴대폰에 더 의존하고, 휴대폰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은 비디오게임이나 인터넷에 심취하여 인터넷

을 의존하게 되며 여학생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고 정서를 표현하고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휴대폰을 더욱 사용한다(Koivusilta, 2005; Yen, 2007)는 분석과 더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휴대폰을 과다 사용한다고 지적한 연구결과(류미숙·권미경, 2011; 임진형, 2007; 최은영, 2008)를 뒷받침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높다고 인지한 집단이 낮다고 인지한 집단보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게 나타났다. 즉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지원이 서로간의 교류와 친밀감을 더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그 가운데 가족간에도 이해와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맥락에서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연구들(박수선, 2010; 서하진·김정옥, 2009)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성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되고 있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의 차이

종속 독립		N	권위주의 양육태도			휴대폰 중독			
			M	SD	F(t)	M	SD	F(t)	
성별	남	117	2.165	.717	.128	2.140	.728	6.630*	
	여	120	2.314	.758		2.452	.595		
경제 수준	상	45	2.282	.818	2.200	2.415	.640	.271	
	중	143	2.195	.709		2.338	.657		
	하	50	2.450	.769		2.327	.680		
종속 독립		N	정서적 유대			충동성			
			M	SD	F(t)	M	SD	F(t)	
성별	남	117	3.959	.774	.167	2.016	.630	.086	
	여	120	3.859	.668		2.332	.713		
경제 수준	상	45	4.024	.823	5.623*	2.133	.829	.586	
	중	143	3.950	.599		a	2.239		.644
	하	50	3.606	.799		a	2.284		.749

*p<.05

〈표 4〉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1.000			
2.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428***	1.000		
3. 충동성	.307***	-.345***	1.000	
4. 휴대폰중독	.208**	-.276***	.379***	1.000

** p<.01 *** p<.001

3. 변수들의 상관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휴대폰 중독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로 휴대폰 중독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r=.208, p<.001$)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내었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r=-.276, p<.001$)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경험하거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낮은 청소년의 경우 휴대폰 중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의 관계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r=-.428, p<.001$)가 낮게 나타나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부정적으로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들은 권위주의적 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휴대폰 중독으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충동성은 유의한 정적 관계($r=.307, p<.001$)를 나타내었으며 휴대폰 중독($r=.208, p<.001$)과도 유의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즉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휴대폰 중독은 충동성과 관련성이 높게 나타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충동성이 높을 때 휴대폰 중독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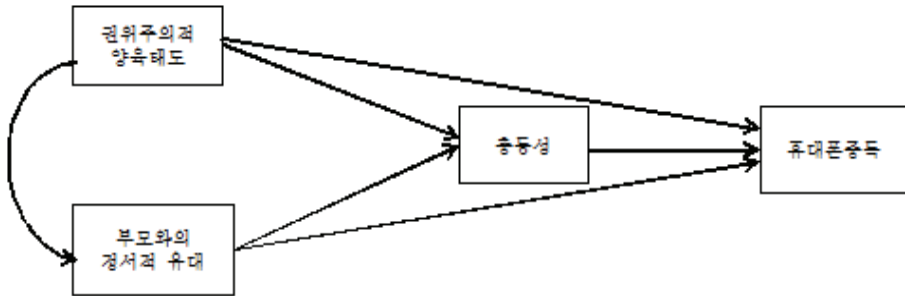
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는 유의한 부적 관계($r=-.345, p<.001$)가 나타나 청소년의 부모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청소년의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내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행동에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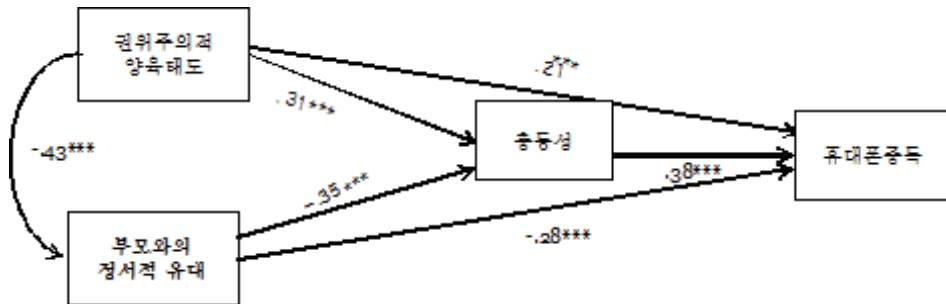
4.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휴대폰 중독과 충동성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먼저, 청소년의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본 모형을 추정하였다(<그림 1> 참조).

다음 단계에서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휴대폰 중독과 충동성과의 관계의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인과모형을 살펴 보았으며 기본 모형의 적합도를 보았을 때 모형의 RMSEA가 .028이고 TLI값과 CFI값이 .987으로 모형의 적합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chi^2=24.573, df=3$). 즉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미치며, 충동성에는 직접적 정적 영향을, 휴대폰 중독에는 직접적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의 정서적



〈그림 1〉 기본모형



〈그림 2〉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의 관계

유대는 충동성에는 직접적 정적 영향을 주었고, 휴대폰 중독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미치고 충동성도 휴대폰 중독에 직접적 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림 2〉, <표 5>참조).

특히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충동성에 직접적 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표 5〉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과의 경로모형

	표준화 경로계수	비표준화 경로계수	S.E	C.R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 정서적 유대	-.43***	-.40	.057	-7.188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 충동성	.31***	.29	.006	5.026
정서적 유대 → 충동성	-.35**	.32	.008	-5.325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 휴대폰 중독	.21***	.18	.056	3.268
정서적 유대 → 휴대폰 중독	-.28***	-.26	.006	-4.344
충동성 → 휴대폰 중독	.38*	.35	.006	6.230

*p<.05 **p<.01 ***p<.001

(표 6) 휴대폰중독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

기준변인	예측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정서적 유대	권위주의적 양육	-.43		-.43	.169
	충동성		.10	.41	
충동성	권위주의적 양육	.31	.10	.41	.252
	정서적 유대	-.35	.06	-.29	
휴대폰 중독	권위주의적 양육	.21		.21	
	정서적 유대	-.28	-.03	-.31	.414
	충동성	.38	.06	.44	

정서적 유대가 낮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낮을수록 충동성은 높게 나타났으며 충동성이 높을수록 휴대폰 중독도 높게 나타났다. 즉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낮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높은 충동성을 통해 휴대폰 중독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충동성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는 <표 6>과 같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대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의 설명량은 16.9%였으며 충동성에 대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의 설명량은 25.2%로 나타났으며 휴대폰중독에 대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충동성의 설명량은 41.4%로 나타났다. 특히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휴대폰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충동성을 통해 휴대폰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도 휴대폰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충동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낮고 충동성이 높다면 휴대폰중독에 대한 경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 등 모든 변인에 중요한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휴대폰중독에 대한 설명량은 41.4%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충동성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16%가 증가하였는

데 이러한 결과는 휴대폰중독에 긍정적 요인의 영향력보다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충동성과 같은 부정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휴대폰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 긍정적 요인을 강조하고 이를 적용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부정적 요인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제거하는 예방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V. 논의 및 결론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은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만이 보통수준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부정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충동성과 휴대폰중독은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성별에 따라 휴대폰 중독에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휴대폰 중독이 높게 나타나 여자청소년자녀가 남자청소년자녀보다 휴대폰에 더 의존하고 몰입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멀리 떨어진 친척, 자주 만나기 힘든 친척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또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정보교환은 물론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화를 자주 이용한다(Rakow, 1992)는 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전화사용의 역할모델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온 여자 청소년자녀들은 남자 청소년자녀들에 비해 전화를 이용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 유지하는 기술을 습득하는데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우호적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휴대폰을 활용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Rautiainen & Kasesniemi, 2000). 반면 남자 청소년자녀들은 휴대폰을 대상(object)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고, 휴대폰이 갖고 있는 오락성과 과시적, 기술적 측면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Ling, 2001)는 결과로도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여자청소년과 남자청소년의 휴대폰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남자청소년에 비해 여자청소년은 휴대폰사용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는 있으나 휴대폰중독 증상인 지나친 의존과 몰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셋째, 경제수준에 따라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에서 차이를 보였다. 즉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일 때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그 가운데 가족간 이해와 소통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들(박수선, 2010; 서하진·김정옥, 2009)은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물질 자원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고 올바른 경제적 자원관리를 통한 여유로운 생활이 부모자녀간 긍정적 관계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넷째,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자녀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에는 직접적 정적 영향을 주었다.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같은 자녀에 대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태

도는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다. 즉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신뢰하며,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휴대폰 중독과 같은 청소년의 행동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영향력은 청소년기에 특정대상에 집착하거나 중독되는 행동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정적이고 통제적일수록 청소년자녀의 휴대폰 중독이 높아진다는 연구와 같은 결과들(류미숙·권미경, 2011; 정복자, 2010; 차미숙, 2006; 최은영, 2007)을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일 경우 휴대폰 사용을 주로 대화나 의사소통으로 하고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적대적, 통제적일 경우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결과(정복자, 2010)를 볼 때 휴대폰 중독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부모의 민주적이고 합리적 양육태도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요약컨대 부모의 양육태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문제행동에도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모가 되기 이전부터 부모됨을 위한 준비와 올바른 부모의 양육태도형성을 위한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자녀의 충동성에 영향을 주었다. 부모의 적절한 통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위험행동의 강력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임순선·한상철, 2011; Weisskirch, 2009)고 하였다.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자녀는 앞뒤없이 행동하거나 생각없이 말을 하는 등의 신중성이 떨어지며, 긴장감을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부모의 정서적 유대는 휴대폰 중독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휴대폰 중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부모와 개방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휴대폰 중독이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문제중심적 의사소통을 할수록 휴대폰 중독의 경향은 높게 나타났다(유평수, 2010; Katz, 1999).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이야기가 가정 내에서 별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시되는 분위기라면, 휴대폰에 의존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아지며 개인화된 휴대폰을 통해 부모와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의식하지 않고 친구와 직접 연결될 수 있게 될 때, 가정에서 충족시키지 못했던 커뮤니케이션 욕구가 휴대폰을 통해 발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나은영, 2001). 따라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을 경우 청소년자녀의 휴대폰 중독이 일정 부분 감소될 수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어 청소년 문제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반면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구조와 휴대폰 중독수준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다고한 연구(김용진, 2006)도 있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여섯째, 휴대폰중독에 대한 예측변인들의 효과를 보았을 때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충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충동성을 통해 휴대폰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도 휴대폰중독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청소년자녀의 충동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낮을지라도 충동성이 높다면 휴대폰 중독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는 청소년자녀의 휴대폰중독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부모와의 긍정적 애착은 사회유능성, 정서적 적응, 자존감, 신체적 건강 등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Allen & Kuperminc, 1995; Kobak & Cole, 1993)을 볼 때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자녀 개인측면에 밀접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부모를 떠나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핵가족 체제하의 현대사회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와 건강성이 청소년자녀의 휴대폰중독과 같은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또한 청소년자녀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소년자녀뿐만 아니라 그 부모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때 효과성과 실효성은 배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자녀의 충동성도 휴대폰중독에 직접적 정적 영향을 주었다. 청소년들의 자기통제의 실패로서 생활기능영역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정보미디어의 사용에서도 충동조절장애 또는 중독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쉽다고 한 Sapira 외(2000)가 주장한 것과 같이 충동성은 휴대폰에 의존하고 몰입하는 양태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은 현실보다 가상세계에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기 쉽다고 하였다(이계원, 2001).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심사숙고하지 않고 행동하며,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여 욕구를 참지 못하고 무절제성을 보이기 쉬워 자기통제력이 결여된 사람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청소년자녀의 자기통제력을 증가시키고 충동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통제프로그램을 비롯한 인지행동 집단상담, 집단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개별적 접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휴대폰 중독은 여자청소년자녀가 남자청소년자녀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여자청소년자녀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도구로서 휴대폰이 활용되는 것을 넘어 이들의 학업과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환경의 변화와 방대한 정보를 수용하고 있는 청소년시기에 생리

학적, 성인지적 차원에서 여자청소년자녀와 남자 청소년자녀를 위해 휴대폰의 올바른 활용과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인지적 차원의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개입의 효과는 청소년자녀 각각의 성차에 대한 이해, 행동문제의 예방과 해결 뿐만아니라 보다 성숙한 개인으로 성장시키고 사회구성원으로 조화로운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청소년자녀의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게 나타났는데 경제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보다는 긍정적 요인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일차적인 욕구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힘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과 그 부모가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상태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각종 경제적 부담완화 정책들이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부모자녀간 유대감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충동성에 중요하고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충동성에 긍정적 요인의 영향력보다는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결혼전 부모됨의 준비과정이 필요하며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역할 습득을 위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부모가 주는 영향력이 자녀에게 절대적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시기가 되었을 지라도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의 건강한 변화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넷째,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청소년자녀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을 막아내는 핵심요소로 작용한다. 즉 청소년자녀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게 형성된 경우 청소년자녀의 충동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청소년

이 휴대폰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적으며, 사회적 안전지대로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필수적이며 자신의 문제해결과 대처능력, 자존감 등을 키워나갈 수 있는 토양을 얻는다고 하겠다. 따라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자녀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그 관계의 특성은 다시 개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부모와의 관계가 개인의 심리적 기반형성에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각 변인들 중 핵심적 요인인 충동성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휴대폰중독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나타나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가 높은 경우 충동성이 높다면 휴대폰중독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가 높을지라도 충동성이 높다면 휴대폰중독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자녀의 휴대폰중독에 있어 부모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자녀의 개인적 특성인 충동성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휴대폰중독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청소년기 자아통제력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감안할 때 무엇보다 충동성을 조절하는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자녀 부모의 권위주의적 양육태도 경험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더불어 청소년자녀의 충동성을 통해 휴대폰중독에 정적, 부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청소년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 감소를 위한 개인과 가족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의 올바른 미디어 사용 정책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제한점으로는 청소년의 충동성과 휴대폰 중독의 심각도에 따라 구분하여 접근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한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을 야기시키는 변인들의 다양한 탐색과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1) 광민주(2004). 청소년의 휴대폰이용실태와 중독적 이용.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정빈(1990). 봄에 지는 낙엽들. 서울 : 대교출판.
- 3) 김명혜(2005). 이동전화를 통해 본 어머니 노릇(Mothering)의 재생산. 한국언론학보, 49(4), 140-165.
- 4) 김병구·윤상오·이해경(2006). 휴대폰 중독 원인분석.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6-14.
- 5) 김용석·박명숙(2000).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공통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청소년 음주와 비행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2, 83-106.
- 6) 김용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휴대폰 과다사용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혜수(2005). 청소년과 휴대전화.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보격차 ISSUE REPORT, 05-11.
- 8) 나은영(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5(4), 189-228.
- 9) 류미숙·권미경(2011). 휴대폰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의사소통 차이 비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4(2), 76-83.
- 10) 박수선(2010).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한국자원경영학회지, 14(1), 37-55.
- 11) 박응기(2003). 대학생들의 이동전화 중독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2), 250-281.
- 12) 박현선(198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양심영·박선영(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성향 예측모형. 대한가정학회지, 43(4), 1-16.
- 14)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8-176.
- 15) 서하진·김정옥(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 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3), 141-178.
- 16) 송재원(2005).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관계에 따른 청소년의 핸드폰 이용행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유평수(2010). 중학생의 학교성적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양식과 휴대폰중독과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 33-51.
- 18)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9) 이나연(1995). 비행 및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이송선(2000). 청소년의 컴퓨터게임중독과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이시형·이세용·정현희·박현선(1997).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보고서.
- 22) 이진형(2006).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변인과 개인심리적 변인 탐색.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해경(2002).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들의 폭력 게임 중독을 예측하는 사회심리학적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4), 55-79.
- 24) 이해경(2008). 휴대폰 중독사용을 예측하는 변인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133-157.
- 25) 이해경(2009). 10대 청소년들의 휴대폰 중독적 사용의 예측변인들: 20대, 30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6(1), 117-153.

- 26) 이현수(1992). 충동성검사 실시요강: 서울 : 한국가이던스.
- 27) 임순선·한상철(2011). 휴대폰을 사용한 청소년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생활모니터링과 부모역할 효능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27, 130-150.
- 28) 임진형(2007). 청소년의 휴대폰중독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9) 정복자(2010).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사용행동의 관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차미숙(2006). 외로움이 청소년의 휴대폰중독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재요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1) 최병목·조규영·연화준·정우환(2005). 청소년의 휴대전화 사용실태 조사 연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05-08.
- 32) 최선희(2008). 중학생의 인터넷 및 휴대폰사용과 자기통제력, 학업성취와의 관계.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최은영(2008). 청소년의 애착과 성취욕구가 휴대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4) 최이순(2007). 청소년의 휴대폰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8). 2008 정보화 통계집.
- 36) 한주리·허경호(2004). 이동전화 중독 척도 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8(6), 138-165.
- 37)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에 있어서 적합도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 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38) 헤럴드경제(2012). 당신아이의 휴대폰에 중독됐었다면. 2012. 2. 17.
- 39) Allen, J. P. & Kuperminc, G. P.(1995). *Adolescent attachment, social competence, and problematic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
- 40) Bowlby, J.(1988). *A secure base: Parents-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 Basic Books.
- 41) Gray, J. A.(1987). Perspectives on anxiety and impulsive: A commentar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1*, 493-509.
- 42) Hu, L.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43) Hudson, W.(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homewood*. IL : Dorsey Press.
- 44) Katz, J.(1999). *Connections: Social cultural studies of the telephone in America life*.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 45) Knecht, T.(1995). Joy riding: Multiple criminal car rides in an intoxicated state in relation to dyssocial personality with addictive tendencies. *Archive fur Kriminologie, 196(1-2)*, 1-5.
- 46) Kobak, R. & Cole, C.(1993). *Attachment and meta-monitoring: Implications for adolescent autonomy and psychopathology*. In D. Cicchetti(Ed.).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 47) Ling, R.(2000). Direct and mediated interaction in the maintenance of social relationships, InSloane, A. & Van Rijn, F.(Eds.). *Home informations and telematics: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ety*. Boston, MA: Kluwer, 61-86.

- 48) Logue, W. A.(1995). *Self-control*. New York : Prentice Hall.
- 49) Madell, D. & Muncer, S.(2004). Back from the beach but hanging on the telephone? English adolescents' attitudes and experiences of mobile phones and the internet. *Cyber-psychology & Behavior*, 7(3), 359-367.
- 50) Mercedes, S. (2009). Factors associated with cell phone use in adolescents in the community of Madrid (SPAIN). *Cyber-psychology & Behavior*, 12(2), 131-137.
- 51) Rakow, L.(1992). *Gender on the line: Women the telephone and community life*.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52) Rautiainen, P. & Kasesniemi, E.(2000). Mobile communication of children and teenagers: Case Finland 1997-2000, in *The social consequences of mobile telephony: The proceedings from a seminar about society, mobile telephony and children*, edited by R. Ling and K. Thrane. Telenor.
- 53) Sapira, N. A., Goldsmith, T. D., Keck, P. E., Khosla, U. M. & McElroy, S. L.(2000). Psychiatric features of individuals with problematic internet use.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7, 267-272.
- 54) Weisskirch, R. S.(2009). Parenting by cell phone: Parental monitoring of adolescents and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8), 1123-1139.

- 투 고 일 : 2012년 12월 21일
- 심 사 일 : 2013년 1월 11일
- 심사완료일 : 2013년 4월 17일